

대학대회도 유치...보성 축구열기 대단하네

4년 연속 광주·전남 초·중등부 주말리그 개최 이어

스포츠마케팅 효과...관광객 늘고 지역경제 살아나

보성군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광주·전남 초·중등부 주말리그 축구대회를 유치한데 이어 카페베네 U리그(대학) 호남권 축구대회까지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축구경기 유치를 통해 보성을 찾는 관광객 수도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광주·전남 초·중등부 주말리그 축구대회가 9일 벌고 생태공원 축구장에서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초등부 22라운드 110경기, 중등부 18라운드 45경기 등 6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군은 매주 800여명의 선

수와 학부모가 보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13년 카페베네 U리그 호남권 축구대회는 오는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매주 금요일 벌고 생태공원축구장에서 대학부 8라운드 17경기가 열리며, 매주 4~6개팀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2013년 주말리그와 카페베네 U리그 축구대회는 군과 군체육회가 후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 전남축구협회와 보성군축구협회가 주관한다. 초·중·고등부, 중등부, 대학부 학생들이

출전해 매주 경기를 펼치는 이번 대회에서 초·중등부 1위팀은 다음해 전국소년체전 전남 대표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 각 부 상위 3개팀은 연말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4년 연속 주말리그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군과 군체육회, 지역주민의 화합과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성군을 찾는 광주·전남 축구 선수와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 소속 동호인클럽과 지역 사회단체가 개별 참가팀과 결연을 맺어 보성을 안내하고 떡, 음료수 등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벌고생태공원 축구장은 부대시설 준공으로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으로서 동계전지훈련과 각종 축구대회 개최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군은 벌고스포츠크터를 신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여수 인재육성장학금 줄잇는다

두달새 상의 3000만원 등 7600만원 모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는 10일 "장학회가 제2의 설립정신으로 올해부터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두 달만에 76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장학기금 확대캠페인에 나선 장학회는 현재 여수상공회의소 3000만원, 심장섭 이사장 2000만원, 대신기공 김철희 대표 1000만원, 주승용 국회의원 500만원, 이용욱 치과 500만원 등 모두 76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특히 심장섭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7000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장학회 최준열 사무국장은 "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 기업체와 개인 등 450곳에 기탁금 모금 안내 서한을 발송했고, 이후 기탁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더 큰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흥수협 '고속 성장'

작년결산 순이익 21억 전국 6위

위판고도 사상 최대 941억 성과

고흥군수협이 지난해 결산결과 순이익 전남 1위, 전국 6위로 급성장 했을뿐 아니라 위판고 역시 사상최고인 941억원을 올려 전국 1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10일 고흥군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에서 2011년 매출 3014억원 대비 323억원이 증가한 3337억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당기순이익은 21억5600만원으로, 전국 92개 수협 중 6위, 전남 20개 수협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미처리 결손금은 28억4000만원에 불과해 늦어도 오는 2014년 상반기 중에는 미처리결손금을 완전 청산, 부실조합으로 지정된 지 15년만에 정상조합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판사업에 있어서도 수협중

양회 위판고 성장탑 3위 수상한 지난 2011년 실적 889억원보다 51억원이 늘어 조합 설립 이후 최대 성과인 941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1년 10월 취임한 차중훈 조합장의 취임 전 사업규모는 2571억원, 임여는 7억4000만원, 미처리 결손금은 5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차 조합장 취임 이후 고흥군수협의 실적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고흥군수협의 설명이다. 차중훈 조합장은 "어려운 가운데 이 만큼 성장할수 있었던 것은 조합을 믿고 변함없이 성원에 주신 조합원의 힘이 가장 컸다"며 "2015년부터 출자 배당을 꼭 해드려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오! 여수 3색'에 빠진 상춘객들

'Oh Yeosu 3색 특별 관광열차'에 몸을 실은 400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들이 지난 9일 새벽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해 하루 동안 여수 수산시장 등을 둘러봤다. '3색 열차'는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무박2일 일정으로 모두 10차례 운행한다. <여수시 제공>

여수바람회 '음악값' 1억2000만원 배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에 올라 퍼졌던 음악의 저작권을 놓고 법적 소송이 벌어져 박람회조직위가 저작권 협회에 1억여원을 배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엔 올라 퍼졌던 가요와 팝송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조직위가 저작권협회와 소송 끝에 지난해 말 1억2000만원을 저작권협회에 물어줬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흥 석류산업 국무총리상

인센티브 국비 2억 지원금

고흥군은 10일 "올 초부터 진행된 농수산식품부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고흥석류향토산업이 S등급 최우수에 선정돼 인센티브 국비 2억원 추가지원과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고흥석류 향토산업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들여 석류의 미(美)기능성 식품 빨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류 가공시설 HACCP 시설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흥을 전국 제1의 석류 주산지로 자리매김시켰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새얼굴 "인성교육 바탕 글로벌인재 육성"

신경수 순천교육장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육이 멋지게 어우러지는 순천교육을 만드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순천교육지원청 신경수(55)교육장은 명품 순천교육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체험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교육장은 "순천 교육의 중책을 맡으면서 오로지 교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육가족들을 믿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과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도교육청 장학사, 도교육청 평생학습과장을 거쳐 순천공고 교장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종기자

전북

보조금 노린 비영리단체 '난립' 전북 작년 874개 등록...시·도별 인구대비 가장 많아

전북지역에서 비영리단체가 난립해 보조금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874곳으로, 국내 17개 시·도의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365개, 충남 351개, 강원은 25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영리단체가 난립하는 이유는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는 '등록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가 무분별하게 늘면서 보조금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는 해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영리단체에게는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로 지난해 전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비영리단체는 180여곳에 달했다. 비영리단체는 100이상으로 구성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등 7가지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상당수 단체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설립됐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유령단체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말까지 31개 소관부서와 함께 이들 비영리단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정읍 칠보 지역공동체 '행복나눔' 훈훈

한우영농조합법인·교회·업체·학생 등 참여

어르신들에게 설렁탕·빵 제공...즐거움 선사

정읍시 칠보면 지역공동체들의 훈훈한 행복 나눔 실천이 화제다. 이들 지역공동체들은 이웃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정을 베풀며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먼저 칠보산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이경연 외 4인)과 칠보안식교회(목사 김택수)는 지난해부터 매주 2차례 칠보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오고 있다. 직접 차량을 몰아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을 식단으로 데려간 뒤 설렁탕

을 대접하고 직접 구운 빵을 전달하며 나눔과 효를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칠보면 소재 오리농 생산업체인 썬팜도 동참, 매주 400개의 오리알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또 칠보면에만 국한됐던 수해대상 지역을 인근 산내면과 용동면까지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칠보초등학교에서는 칠보산한우영농조합법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이 독거노인세대를 직접 방문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과 칠보산한우 설렁탕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칠보면은 호남유교문화의 산실인 태산선비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어른을 모시는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 및 안내에 주력하는 한편 교통 편의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순창,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

순창군이 축산농가의 일손을 덜어 주고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한다. 군은 그동안 사료용 옥수수가 초식 가축에 우수한 사료 작물이지만 수확이 어려움이 많아 기피하는 재배농가를 위해 수확에 필요한 장비 자부식 배일러, 랩피복기, 파종기, 트래일러를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보급하고, 지난해부터 수확작업을 실시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2012년도 '통계연보' 발간

정읍시는 시장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교육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제18회 정읍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된 정읍시 통계연보 작

올해는 사료용 옥수수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 신청 결과 40여농가가 50ha 면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8ha가 확대된 면적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옥수수 재배희망농가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성 기준일은 2011년 12월31일이다. 정읍시 통계연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및 토지, 기후, 노동, 사업체, 주택, 건설, 환경 등 16개 분야 237개 항목에 대한 각 분야별 현황과 부록 11개 항목을 담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메주 홈쇼핑 '동났다'

전달 4000박스 전량매진...3억4800만원 매출

순창에서 생산한 전통메주가 농수산 홈쇼핑에서 전량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주)순창장류에서 생산한 전통메주가 생산 2년째를 맞아 전국망을 통해 본격 보급되고 있으며, 지난달 정월대보름 기획판매행사도 실시한 농수산 홈쇼핑에 3회 출연해 4000박스가 전량 매진돼 3억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우체국 택배 사업도 주춤했던 지 계속되고 있으며, 올 들어 고추장민속마을에 35을 공급하는 등 순창메주의 대량생산과 판매가 추진되고 있다. 순창 메주는 특히 전통메주의 제조 방법을 통해 우수한 황국군

과 고추장, 메주발효균을 선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현대적 제조공정을 접목함으로써 안전성과 위생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순창장류는 100% 순창산 콩만 계약재배해 4단계의 선별과정을 거쳐 연간 1000t의 메주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장류에서 생산된 메주, 간장, 된장은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관내 제조업체와 상생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현찰쌀보리 음식 메뉴 개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현찰쌀보리명품화 향토사업추진단은 지난 8일 관내 음식점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현찰쌀보리 향토음식 메뉴개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산은 현찰쌀보리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숙명여대 전통음식연구소와 메뉴개발을 추진해 왔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교육

군산시는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오는 14일 오후 3시 공설시장 내 여성교육장 대강당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는 각 단체, 협회, 상인회, 사회적기업 등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협동조합의 기본개념부터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와 특징, 다양성, 역사와 선진국 사례, 설립방법,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이남섭 한일장산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단장이 강의를 맡아서 진행한 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중국어 회화교실 무료 운영

남원시는 사단법인 남원한중민간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회화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중국어 회화교실은 그동안 일부 외국어학원에서 비싼 수강료 등으로 배움을 포기했던 시민과 중국어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야간에 서남대 중어중문학과 강정만교수가 향교동 지리산 새마을금고 남원지점 2층 회의실에서 강의한다. 또 남원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스테디를 이달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